

高麗時代 倣製鏡 製作에 대한 研究

안 경 숙(국립중앙박물관)

1. 머리말

고려동경은 최근의 가시적인 발굴성과를 통해 고려동경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양적 축적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동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 고려동경을 연구해야 하는 까닭은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시대 유적 출토 동경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들 수 있겠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동경이 갖고 있는 의미 파악을 위해서 선사시대 이래 거듭된 출현과 쇠퇴의 반복을 거쳐 번영기를 맞이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특히 고려동경에 대한 연구가 체계를 잡아가면 이전시기인 삼국, 통일신라시대 및 선사시대 동경 연구에 있어서 풀리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 해결 실마리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양이 전해지고 있는 고려동경은 지금까지 倣製·輸入·交易·模倣으로 설명되어 왔다. 고려경의 대유행에 대해 이러한 경향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방제경유행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에 제작된 한대 동경의 방제품은 그동안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각 박물관 소장품으로 소개되어 왔으나 최근 발굴사례를 통해 고려시대 유구에서 漢代 경의 방제품이 소개되었다. 이에 대해 방제경 유행 혹은 傳世의 가능성도 언급된 바 있는데,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는 京畿道 華城 宋羅里 1號墳에서 출토된 [家常富貴]鏡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방제경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이래 제작되었는지를 중국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국제적 연계 속에서 고려 동경이 갖는 의의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려 동기의 다량제작이라는 부분과 중국에서의 사주 금지와 험기 발달, 그리고 방제경 제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주 동경의 고물매매라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고려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동경의 편년과 성격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1) 銅器의 다량제작

우선, 고려의 동기 제작과 사용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자.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양국의 동기제작과 사용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기록은 역시 『宣和奉使高麗圖經』이다. 고려땅에는 금, 은은 적고, 동으로 만든 그릇이 많다고 적고 있으며, 또 일상생활에 구리 그릇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12세기 말에 고려를 방문한 금나라 사신들은 동으로 만든 그릇들을 많이 가지고 갔다는 기록도 있어 주목된다.

(a) 少金銀而多銅器用漆作不甚工而螺鈿之子細密可貴 『宣和奉使高麗圖經』卷23, 雜俗二, 土産

(b) 國王王昭遣其臣王子佐丞王兢佐尹皇甫魏光等來進名馬及織成衣襖弓劍器甲等賜兢等龍衣銀帶器幣有差

(按五代史是年正月遣使貢黃銅) 『海東繹史』卷35, 交聘志 3

(c) (顯德) 六年(959) 昭遣使者貢黃銅五萬斤 『新五代史』卷74, 四夷附錄 第3

(d) 八月(按恭帝即位後也五代史作八月壬寅) 遣使朝十一月復遣使貢黃銅五萬斤白水精二千觔(全上五代史是年十月又遣使) 『海東繹史』卷35, 交聘志 3

동을 채취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실지로는 많은 동이 생산되었음을 알려주는 기록들이 있어 주목된다. 동 수출기사인 (d)는 이 때, 중국 後周에 2차에 걸쳐 황동을 보냈는데 11월에 보낸 양은 5만근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려에서 이미 중국에 다량의 동을 수출했던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고려와 중국과의 교류물품을 보면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송과의 교류품목을 살펴보자. 고려에서는 주로 錦, 苧布, 金銀銅器, 帶飾, 漆甲, 靑瓷 등을 조공이나 방물로 보냈고, 송에서는 禮服, 絹, 羅, 綾, 瓷器 등의 물품을 보내왔다. 반면 민간의 교류에서는 송상은 차, 錦, 綾, 羅, 불구, 자기, 상아 등을 가지고 와서 고려의 삼, 약재, 동과 동기, 무기 등을 수입해갔다고 한다.

요로 개명한 거란의 경우에도 고려에서는 주로 금·은 및 각종 공예품을 수출하고, 丹絲·羊 등을 많이 수입하였다고 한다. 金은 고려에 馬, 獸皮 등의 방물을 보내오고, 고려에서는 服飾, 金銀銅器를 가져갔으며, 원대에는 고려에서 金, 銀, 銅, 鐵, 苧布, 黃漆 등을 가져가고, 원에서는 주로 금, 은, 복식, 마구, 자기, 무기 등을 보내왔다고 한다. 宋·遼·金·元대의 주요 수출품 중에 銅器가 필수였음을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고려시대에 동기가 얼마만큼 다양하고 다량으로 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빈번하게 행해졌던 고려와의 무역에서 주로 교역되었던 동기 중 동경, 이것은 앞으로 언급할 바와 같이 사주금지와 험기의 발달, 사주한 동경의 고물매매, 원대 고려에서의 동 징발시도 등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개성과 강화출토로 전하는 수많은 고려동경들의 의미이다. 지금까지 이 전세동경들은 개성과 강화가 고려시대 귀족들의 근거지였음을 들어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생활용품이란 점을 강조해온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지역에서 전해지는 동경은 이러한 교역품으로서의 성격을 한층 명확히 해주는 단서는 아니었을까하는 점이다.

2) 私鑄禁止와 驗記의 발달

중국은 동경 제작이 번성기를 이루었던 唐代 이후로 동 부족으로 인해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심지어는 관에서 禁銅令을 내리기까지 했으므로 이 시기의 동경은 실용성이 중시되어 도안이 조잡해진다. 중국의 동 고갈상태에 관한 사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항은 쉽게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동 고갈 상태는 동기의 사주와 깊은 연관이 있다.

(a) 建中靖國五年(1101) 兩浙盜鑄尤甚 小平錢益少 市易濡滯 … 時錢幣苦重 條序不一 私鑄日甚 『宋史』卷180 志第133 食貨 下2

(b) (大定) 八年(1168) 民有犯銅禁者 上曰 銷錢作銅舊有禁令 然民間猶有鑄鏡者非銷錢而何遂併禁之 『金史』卷48 志第29 食貨3 錢幣

(c) (大定) 十一年(1171) 二月 禁私鑄銅鏡 舊有銅器悉送官 給其直之半 惟神佛像 鐘磬鈸腰束帶 魚袋之屬 則存之金史』卷48 志第29 食貨3 錢幣

(d)元 遣李熙載來 詔曰 除法物鐘磬銅鏡古銅瓶鼎熟銅器物外 其餘應有銅錢生銅器物 以聖旨到 限百日 悉納所在官 尋命停罷 『高麗史』 世家 30 忠烈王 11年 6月 己酉

이 기록들은 국가적 차원으로 동경의 사주금지를 행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면 동 부족현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계속된 사주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전을 녹여 거울을 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기록들에서는 금동령 뿐만 아니라 종래의 동기를 관에 모으는데 경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d)기사도 참고할 만하다. 이것은 원나라에서 李熙載를 보내와 詔한 내용으로 비록 명령을 철회하긴 했지만 元代에 고려에서까지 동 징발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동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려 동경이 法物로 취급되어 다량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단서도 될 수 있다.

이러한 동 부족 현상과 더불어 金鏡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緣部에 官府驗記라고 문자와 押이 새겨진 것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사로운 주조를 금하고 불법주조 동경의 매매를 금지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刻記를 제외하고도 金代銅鏡에는 官鑄와 私鑄를 표시하는 레도 있다.

이들의 穀識나 刻記·銘文은 金代 사주금지의 규제가 지극히 엄해서 銅鏡은 이미 [官方驗記]를 필요로 했다고 하는 여러 기록을 실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사주가 대단히 성행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 때문에 銅鏡의 경배에는 반드시 관부의 驗記를 써야만 비로소 판매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銅鏡 사주 금지령을 반포했다. 刻記 중의 [北京驗記], [官(押)], [韓州主簿驗記官高(押)] 등은 모두 검사가 완료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고려동경으로 전하는 것에도 이러한 刻記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중국 당대 이후 동 부족 현상은 원대에 고려에서 동을 징발하려던 시도까지 보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과 사주가 성행해 거둬 주경 금지령도 내려져 관부협기를 받은 것만이 매매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동경 소유에 대한 욕구가 컸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겠다.

3)私鑄한 銅鏡의 古物賣買

현재에도 고동경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많이 참고하고 있는 『博古圖』 등의 편찬 동기는 취미생활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송대에는 ‘고문부흥운동’과 아울러 복고 취미가 크게 유행했는데, 古銅器 같은 것이 발굴되면 사대부들은 그것을 서재에 장식하고 감상하는 것을 하나의 취미로 삼았다. 이는 당시 사회가 복고적인 것에 관대했으며, 심지어는 고물이라고 칭해서 매매하는 것도 암묵적으로 허용되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주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보자.

(a)(大定)二十六年(1186) 十一月 上諭宰臣曰 國家銅禁久矣 尙聞民私造腰帶及鏡 託爲舊物公然市之 宜加禁約 『金史』 卷48 志第29 食貨3 錢幣

(b)(明昌)二年(1191) 十月 勅減賣鏡價 防私鑄銷錢也 『金史』 卷48 志第29 食貨3 錢幣

(c)亦聞契丹降虜數萬人其工技十有一擇其精巧者留於王府比年器服益工第浮僞頗多不復前日純質耳徐兢 著,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9 工技條

(a)기사는 天子가 나라에서 鑄銅을 금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민간에서는 銅製의 腰帶나 銅鏡을 주조하고 있는 것이 들리며, 고물이라고 칭해서 공공연히 이것을 매매하고 있으므로 금지령을 더욱 강화하라고 명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가에서 반포한 사주 금지가 민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 공공연히 방제품이 제작되고 매매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는 왜 험기가 유행하고, 갑작스레 동경이 많이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해석의 단서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지는 기록인 (b)는 이 때에 勅書를 내려 동경을 엽가로 판매했는데 이는 사주나 동전의 주비를 막기 위함이었다는 내용으로, 이것은 모두 금대에 사주를 금하자 민간에서 고기물을 본 따 동경을 주조하고 이것을 매매하던 것이 성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거둬진 사주금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의 고물매매가 성행하자 국가적 차원에서 동경을 엽가로 판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다.

몇 차례에 걸친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계속됨은 실질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의 반증이며, 그만큼 동경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실마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의 중국이 과연 고려에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고 사여할 여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혹 이 엽가 판매 동경이 교역품으로서의 고려동경은 아니었을까?

사주한 동경의 고물매매는 요·금대 이후의 상황이 될 것이며, 금대 이후 더욱 성행하게 되는데 이는 12~13c초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이것은 발굴 유물로 출토된 고려 동경의 편년과 반드시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앞서 사주한 동경의 고물매매에 대한 기사는 방제경류의 등장, 고려에서 왜 그토록 많은 양의 동경이 제작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방제경류가 많아지는가? 라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기록이다. 방제경이 많아지는 이유는 오히려 전체적인 흐름상 문양에 대한 선호라기보다는 고물이라고 칭해서 공공연히 이것을 매매하고 있다는 구절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단순한 선호 이상의 규범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이전시대의 동경을 모방하여 고물매매로 위장한다면 국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주 금지라는 법규제 부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c)기사는 契丹에서 항복한 포로 수 만 명 중에 기술자가 열명 중 한 명꼴로, 그 중 정교한 기술자들을 왕부에 머물게 하였는데, 근년에 각종 기물과 의복이 더욱 정교하게 되었으나 천박하고 위조품이 많아 옛날처럼 정교하고 질 좋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듯하다는 기사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거란의 기술자가 왕부에 머물면서 각종 기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세한 검토를 요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천박하고 위조품이 많아졌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방제품의 제작과 수출이라는 측면과 연결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맺음말

중국은 北宋時代에 이미 사영으로 거울이 제작되었고, 南宋代에 이르면 사영주조의 풍조가 더욱 번성하게 된다. 遼·金代(907~1234년)는 漢·唐·宋의 동경을 많이 모방하였고, 비교적 투박하지만 새로운 문

양과 정교한 동경이 제작되었다. 특히, 金代는 漢·唐·宋의 여러 가지 유형이 모두 방제되고 있고, 緣部에 官府驗記라고 문자와 押이 새겨진 것이 보인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처럼 중국 동경 역사에 있어서 송·요·금·원대는 가장 쇠퇴한 시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동 부족으로 인한 엄격한 제작관리와 연결되는데, 이는 곧 동경제작기법이 쇠퇴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문제일 것이다. 또 산지명시·제작공방표시는 대량생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며, 이것은 금대 방제경의 유행이라는 측면과도 연계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고려시대는 동경역사상 가장 융성한 시기여서 고려동경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경을 금지하는 기록과 사주한 동경을 고물로 매매했다는 점 등의 기록을 통해 당시 중국의 상황과 고려시대에 생산되는 동기의 종류가 많고, 산출량 또한 많았던 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 제작된 방제경은 앞서 언급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중국 등에 대외 수출용으로 제작된 경이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고려경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宋代 이후 鏡의 金屬成分분석과 추후 고려경의 성분분석 결과의 비교 등이 행해지면 고려경과 중국경의 보다 정확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金史』

『宋史』

『新五代史』

徐兢 著, 『宣和奉使高麗圖經』

高西省, 1999, 「韓中 양국 출토 航海圖紋銅鏡 考察」, 『美術資料』第六十三號, 國立中央博物館

孔祥星·劉一曼著, 安京淑譯, 2003, 『中國古代銅鏡』, 朱黷성

국립중앙박물관, 2002, 『고려·조선의 대외교류』

國立清州博物館, 1992, 「韓國의 銅鏡」, 『國立博物館所藏 韓國의 銅鏡』, 國立清州博物館

吉林省文管會, 1958, 「吉林梨樹縣扁臉城址調查記」『考古通訊』第3期

楊渭生, 『宋麗關係史研究』

李蘭暎, 2002,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 一志社

李蘭暎, 2003, 『高麗鏡 研究』, 도서출판 신유

李美愛, 2002, 『中國与 高麗的工藝美術交流』, 清華大學碩士學位論文, 北京

이호관, 1995, 「일본경도국립박물관소장 고려동경에 대하여」, 『해외문화재조사 제6책 일본소재문화재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

이호관, 1997, 「韓國의 銅鏡」, 『韓國의 金屬工藝』

張泰湘·陶剛, 1982, 「“北京驗記” 金代銅鏡」, 『求是學刊』第3期

秦弘燮著, 1997, 「7. 高麗時代의 美術文化와 思想」, 『新羅·高麗時代美術文化』, 一志社

黃貞淑, 2000, 『高麗 銅鏡의 研究-編年試圖를 위한 基礎研究』, 大邱가톨릭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黃貞淑, 2006, 『高麗 中銅·後期 思想을 통해 본 銅鏡 文樣의 象徵性 研究』, 大邱가톨릭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高麗時代倣製鏡製作についての研究

安京淑
譯：宮里修

はじめに

高麗銅鏡は近年の目覚ましい発掘成果によって詳細な検討に耐えうるほどに資料の蓄積が進んだ。これによって高麗銅鏡についての総合的で体系的な研究を実施する条件が整った。

高麗銅鏡を研究すべき理由として、まず前述のような高麗時代遺跡出土銅鏡を整理する必要性が挙げられる。つづく理由として歴史の全体的な流れのなかで銅鏡が持つ意味を把握するために、先史時代以来の出現・衰退の繰り返しから繁栄期にいたる一連の過程を調べる必要がある。高麗銅鏡研究の体系が把握されれば、前代の三国、統一新羅時代および先史時代の銅鏡研究で解けなかった多くの問題に対して解決の糸口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どの時代よりも多くの資料が伝えられる高麗銅鏡は、現在まで倣製・輸入・交易・模倣などと説明されてきた。高麗鏡の大流行が何に起因するのかは明らかとなっていないが、倣製鏡流行の全盛期を迎える点は共通した認識である。特に高麗時代に製作された漢代銅鏡の倣製品は長い間、国立博物館をはじめとする各博物館の所蔵品として紹介されてきたが、最近の発掘事例として高麗時代の遺構から出土した漢鏡の倣製品が紹介された。これについては倣製鏡の流行や伝世の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が、代表的な事例として京畿道華城宋羅里1号墳出土の「家常富貴」鏡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

よって本稿では高麗時代に製作された倣製鏡がどのような時代的背景のもとに製作されたのかについて、中国と韓国の状況を比較して検討する。これによって国際関係のなかで高麗銅鏡が持つ意味も把握できるようになる。ゆえにまず高麗銅器の大量製作に関して、つぎに中国における私鑄禁止と驗記発達について、さらに倣製鏡製作の直接的な原因となる私鑄銅鏡の古物売買について検討していく。この検討の結果は高麗時代の遺跡から出土する銅鏡の編年と性格を研究するための基礎資料として今後活用されていくものである。

1. 銅器の大量製作

まず高麗の銅器製作と使用についての記録をみてみよう。これらの記録から両国の銅器製作と使用に関する内容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これを最もよく示すのはやはり『宣和奉使高麗図経』である。高麗の地には金、銀は少なく銅でつくるものが多いと記され、また日常生活において銅容器がどれほど多様に使用されているのかについて言及しており注目される。また12世紀末に高麗を訪問した金国の使臣が銅でつくった容器を多く持ち帰った記録も併せて注目される。

(a) 少金而多銅器用漆作不甚工而螺鈿之細密可貴『宣和奉使高麗図経』卷23, 雜俗二, 土産

(b) 国王王昭遣其臣王子佐丞王兢佐尹皇甫魏光等來進名馬及織成衣襖弓劍器甲等賜兢等龍衣銀帶器幣有差(按五代史是年正月遣使貢黃銅)『海東繹史』卷35, 交聘志3

(c) (顯德)六年(959)昭遣使者貢黃銅五萬斤『新五代史』卷74, 四夷附錄第3

(d) 八月(按恭帝即位後也五代史作八月壬寅)遣使朝十一月復遣使貢黃銅五萬斤白水精二千頭(全上五代史是年十月又遣使)『海東繹史』卷35, 交聘志3

銅の採取に関する記録はほとんど残っていないが、実際には多くの銅が生産されたことを示す記録が目立つ。銅輸出の記事である(d)によれば、このとき中国・後周に対し2度にわたって黄銅を送っており11月に送った量は五萬斤にのぼったという。これは既に高麗が中国に多量の銅を輸出したことを示している。

こうした状況は高麗と中国の交流物品をみれば更に理解しやすい。まず宋との交流品目を見てみよう。高麗からは主に錦、苧布、金銀銅器、帯飾、漆甲、青瓷などを朝貢や宝物として送り、宋からは礼服、絹、羅、綾、瓷器などの物品が送られた。一方、民間の交流では松商が茶、錦、綾、羅、仏具、瓷器、象牙などを携えてきて、高麗の人参、薬材、銅と銅器、武器などを輸入したという。

遼に改名した契丹においても高麗からは主に金・銀および各種工芸品を輸出し、丹絲・羊などを多く輸入したという。金は高麗に馬、獣皮などの宝物を送って高麗からは服飾、金銀銅器を持ち帰り、元の場合には高麗から金、銀、銅、銅、鉄、苧布、黄漆などを持ち帰り、元からは主として金、銀、服飾、馬具、瓷器、武器などが送られたという。宋・遼・金・元代の主要輸出品のなかには共通して銅器の存在が確認できる。これは高麗時代に銅器が多様で多量に製作されたことを示す。

すると頻繁に行われていた高麗との貿易で主に交易された銅器のうち銅鏡は、既に言及したように私鑄禁止と驗記の発達、私鑄した銅鏡の古物売買、元代における高麗からの銅徴発などとも自然と関わってくる。併せて調べる必要があるのは開城や江華出土と伝わる多くの高麗銅鏡の意味についてである。現在までこの伝世銅鏡については、開城と江華が高麗時代の貴族の根拠地であったことを根拠に貴族の間で流行した生活用品であったと強調されてきた。しかし別の側面に注目すると、この地域に伝わる銅鏡には交易品としての性格が一層鮮明に現れてく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2. 私鑄禁止と驗記の発達

中国での銅鏡製作は最盛期を迎えた唐代以後、銅不足にともなって厳格な管理を受けるようになる。遂には官から禁銅令が降り、この時期の銅鏡は実用性が重視され図案が粗雑となる。中国の銅枯渇状態に関する資料をみるとこうした状況が容易に理解される。無論、銅枯渇状態は銅器の私鑄と深く関わる。

(a) 建中靖国五年(1101) 兩浙盜鑄尤甚 小平錢益滯…次錢幣苦重 條序不一 私鑄日甚 『宋史』卷180 志第133 食貨 下2

(b) (大定)八年(1168) 民有犯銅禁者 上曰 銷錢作銅舊有禁令 然民間猶有鑄鏡者非銷錢而何遂併禁之 『金史』卷48 志第29 食貨3 錢幣

(c) (大定)十一年(1171) 二月 禁私鑄銅鏡 舊有銅器悉送官 給其直之半 惟神佛像 鐘磬鉦 鈸腰束帶 魚袋之屬 則存之 『金史』卷48 志第29 食貨3 錢幣

(d) 元 遺李熙載來 詔曰 除法物鐘磬銅鏡古銅瓶鼎熱銅器者外 其餘應有銅錢生銅器者 以聖旨到 限百日 悉納所在官 尋命停罷 『高麗史』世家30 忠烈王11年6月 己酉

これらの記録は銅鏡の私鑄が国家レベルで禁止されたことを示している。これによれば銅不足がどれほど深刻であったかが分かる。また継続して私鑄が禁止されたにも拘わらず、銅銭を溶かした鏡の鑄造が繰り返行われたことが分かる。一方、この記録によれば禁銅令が下されただけでなく既存の銅器も官に集められているが、鏡はその対象から除外されており注目される。

これと関連して(d)の記事も参考となる。これは元国から李熙載を送って詔した内容で、たとえ命令が撤回されたとしても元代に高麗に対してまで銅の徴発を実施したのは、銅不足がど

れほど深刻であったかを示すのみならず、高麗銅鏡が法物として扱われたが故に多量に残り得たとする理解の端緒となるだろう。

こうした銅不足現象とともに金鏡の重要な特徴として挙がるのは、縁部に官府驗記という文字と押が刻まれることである。これは私的な鑄造を禁じて不法鑄造銅鏡の売買を禁止するための方策であった。このような刻記を除いても金代銅鏡には官鑄と私鑄を表示する例もある。

これらの穀識や刻記・銘文は金代の私鑄禁止の規制が極めて厳格で、銅鏡には「官方驗記」が必要であったという様々な記録を実証する。これは当時私鑄が相当に横行したことの反証であり、であるが故に銅鏡は鏡背に官府の驗記を記してはじめて販売されたのである。このように中国では数次にわたって銅鏡私鑄禁止令が發布された。刻記のなかの「北京驗記」「官（押）」「韓州主傳驗記官高（押）」などはいずれも検査が完了したことを示している。

高麗銅鏡と伝わる資料にもこうした刻記が残っている場合がある。以上を整理してみると、中国唐代以後の銅不足は元代に高麗から銅を徵発する試図がみられたほどに状況が深刻であったこと、私鑄が盛行して繰り返し鑄鏡禁止令が下り官府驗記を受けたものだけが売買されたことが分かる。これは銅鏡所有に対する要求がそれほどまでに大きかったことの反証にもなるだろう。

3. 私鑄した銅鏡の古物売買

現在でも古銅鏡を研究する際の参考となる『博古図』などが編纂された動機は趣味生活に根ざしていた。宋代には「古文復興運動」とあわせて復古趣味が大きく流行し、古銅器などが発達すると士大夫たちはそれを書齋に飾り鑑賞するのをひとつの愉しみとした。これは当時の社会が復古的なものに寛大であり、極端には古物と偽った売買が暗黙的に許容された社会的雰囲気などを反映している。

そうした記録を調べてみよう。

(a) (大定)二十六年(1186)十一月 上諭宰臣曰 国家銅禁久矣 尚聞民私造腰帶及鏡 託為口物公然市之 宣加禁約 『金史』卷48 志第29 食貨3 錢幣

(b) (明昌)二年(1191)十月 勅減売鏡價 防私鑄銷錢也 『金史』卷48 志第29 食貨3 錢幣

(c) 亦聞契丹降虜數萬人其工技十有一擇其精巧者留於王府比年器服益工第浮偽頗多不復前日純質耳 徐兢 著『宣和奉使高麗図経』卷19 工技條

(a)の記事には、天子が国で鑄銅を禁止して久しいがいまだ民間では銅製の腰帶や銅鏡を鑄造していることが挙がり、古物と称して公然とこれを売買しているため禁止令をさらに強化せよと銘じている。これによって国家が發布した私鑄禁止が民間にどのように受容されたのかが分かり、倣製品が公然と製作・売買された状況が知られる。これはなぜ驗記が流行し、突然多くの銅鏡が製作されたのかを解釈する手がかりともなる、

これに加わる記録である(b)は、このときに勅書を下して銅鏡を廉価で販売したのは私鑄や銅錢の鑄費を防ぐためであったという内容で、いずれの場合も金代に私鑄を禁止した途端、民間では古器物を真似た銅鏡の鑄造・売買が横行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

数次にわたる禁止にも拘わらずこうした行為が継続されたのは、実質的に規制がかからなかったことの反証であり、銅鏡に対する受容がそれほどまでに高かったことを示す手掛かりともなる。このような状況の中国に、果たして高麗に大量の商品を販売し下賜する余力があったのか疑問である。あるいはこの廉価販売の銅鏡が交易品としての高麗銅鏡ではなかっただろうか？

私鑄した銅鏡の古物売買は遼・金代以降に現れた状況で、金代以後いっそう盛んとなる。12～13世紀初めに該当する時期である。これは発掘遺物として出土する高麗銅鏡の編年との比較が欠かせない。

特に前もって私鑄した銅鏡の古物売買についての記事は、倣製鏡類の登場、高麗で多量の銅鏡が製作される理由、さらに倣製鏡類が多くなる理由に関連して注目に値する記録である。倣製鏡が多くなる理由についてはむしろ全体的な流れの上で、文様に対する好みというよりは、古物と称して公然とこれを売買しているという句節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単純な好み以上の規範として禁止されていることと関連するとみられる。つまり前代の銅鏡を倣し古物売買として偽装するためには国家的な私鑄禁止の法規制を無事に通過する必要がある。

またこれと関連して注目すべき(c)記事は、降伏した契丹からの捕虜数万名のうちには技術者が十名中一名の割合で含まれており、そのうち精巧な技術をもつ者たちを王府に止まらせ、最近では各種器物と衣服がかなり精巧になったが、浅薄で偽造品が多く、昔のように精巧で良質のものをつくりだすまでには回復できないという記事である。ここで言うように契丹の技術者が王府に留まりながら各種器物を製作したということは様々な面について詳細な検討を要するものである。しかし浅薄で偽造品が多くなったという点は特に注目に値する。倣製品の製作と輸出という側面と連結される決定的な手掛かりとなり得るためである。

結語

中国は北宋時代には既に私営で古物が製作され、南宋代に至ると私営鑄造の風潮がいっそう盛んになる。遼金代(907～1234年)は漢・唐・宋の銅鏡を多く倣してやや不恰好ではあるが新たな文様と精巧な銅鏡が製作された。特に金代には漢・唐・宋の様々な類型がすべて倣製され、縁部に官府驗記という文字と押が刻まれる特徴をもつ。

このような中国銅鏡の歴史において宋・遼・金・元代は最も衰退した時期に該当する。これは銅不足による厳格な製作管理と関連し、銅鏡製作技法が衰退することに繋がる問題であろう。また産地明示・製作工房表示は大量生産の可能性を示す手掛かりともなり、金代倣製鏡の流行とも連携する。銅鏡の歴史上最も隆盛な高麗時代の高麗銅鏡とは対照的である。

本稿では鑄鏡を禁止する記録と私鑄する銅鏡を古物として売買する記録を通じて、当時の中国の状況や、高麗時代に生産される銅器の種類が多種多様であったことを中心に検討した。これによって高麗時代に製作された倣製鏡が、前述の社会的背景のもとで中国への輸出用品として大量に積極的に製作された鏡であった可能性について慎重に言及した。

こうした研究を深化させるためには今後、高麗鏡の研究方法を努めて多様化することが必要で、宋代以後の鏡の金属成分分析とさらには高麗鏡の成分分析結果の比較などが行われれば、高麗鏡と中国鏡のより正確な関係を示す資料となるのである。

参考文献

『高麗史』

『金史』

『宋史』

『新五代史』

徐兢 著、『宣和奉使高麗図経』

高西省、1999、「韓中 両国出土の航海図紋銅鏡考察」『美術資料』第63号、国立中央博物館

孔祥星・劉一曼著、安京淑訳、2003、『中国古代銅鏡』、周留城

国立中央博物館、2002、『高麗・朝鮮の対外交流』

国立清洲博物館、1992、『韓国の銅鏡』『国立博物館所蔵 韓国の銅鏡』

吉林省文管会、1958「吉林梨樹県偏臉城址調査記」『考古通訊』第3期

- 楊渭生, 『宋麗關係史研究』
- 李蘭映, 2002, 『韓国古代金属工芸研究』, 一志社
- 李蘭映, 2003, 『高麗鏡研究』
- 李美愛, 2002, 『中国与高麗的工芸美術交流』
- 李浩官, 1997, 『韓国の銅鏡』 『韓国の金属工芸』
- 張泰湘・陶剛, 1982, 『“北京驗記”金代銅鏡』 『求是學刊』 第3期
- 泰弘變著, 1997, 『7. 高麗時代的美術文化と思想』 『新羅・高麗時代美術文化』, 一志社
- 黃貞淑, 2000, 『高麗銅鏡の研究—編年試図のための基礎研究—』 大邱カトリック大学校大学院碩士學位論文
- 黃貞淑, 2006, 『高麗 中銅・後期 思想を通してみた銅鏡文様の象徴性研究』 大邱カトリック大学校大学院博士學位論文

